

독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OK!

전자책으로 책과 친해져볼까

요즘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코로나19로 서점과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전자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자책은 시력에 대한 걱정과 종이책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에 있어 마음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겁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워서도 '언제 어디서든 틈틈이' 책을 손쉽게 읽을 수 있어 독서 습관을 기르고 더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올 가을, 다양한 전자책 앱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그득하게 쌓아보면 어떨까.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공공도서관 기반 무료 전자도서관 앱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나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관 앱을 이용해 대출해서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서점이나 전자책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자도서관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데 있다. 재학 중인 학교나 거주 지역의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계정으로 앱에서 로그인하면 무료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아 신간이나 찾는 책이 없는 경우도 많고, 대출 가능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도 해 원하는 책이 대출 중이면 바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책도 넷플릭스처럼! 유료 정기 구독 앱

온라인 서점이나 전자책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읽고 싶은 책을 바로 읽을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요즘에는 책도 구독 서비스가 대세라, 전자책을 낱권으로 구매하지 않고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내고 원하는 책을 골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월정액 구독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교보문고, YES24,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적어도 2권 이상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전자책 정기 구독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전자책 앱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독형인지 아닌지, 원하는 책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추천해준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등 각자의 독서 목적과 취향에 따라 앱을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한 달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 직접 이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앱을 찾아보길 권한다.

전자책 플랫폼별 구독형 서비스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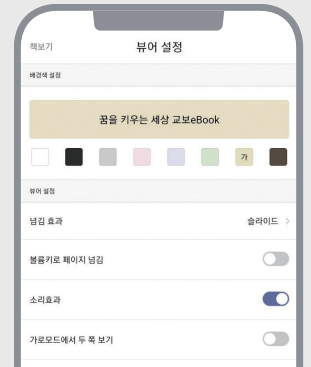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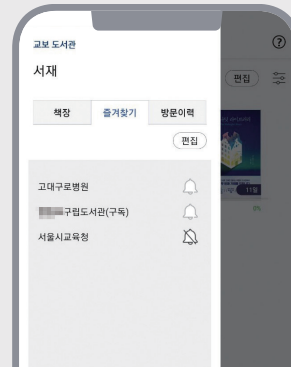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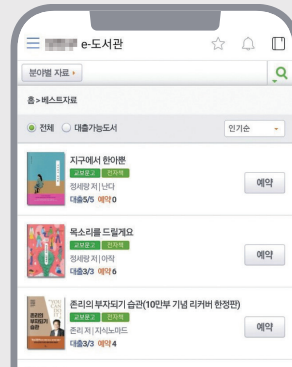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교보문고	YES24
서비스명	밀리의 서재	리디셀렉트	sam	북클럽
구독료(월)	9천900원	4천900원	9천900원 (sam무제한)	5천500원 (스탠다드)
개별 ebook 구매 가능 여부	×	○	○	○
특징	· 보유 도서와 베스트셀러가 많고 신간 업데이트 잘됨 · 오디오북이 강점	· 구독료 가장 저렴 · 인터페이스 깔끔 · 도서 보유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장르 제공	· 도서 스타일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요금제 · 소장 도서가 많아 다른 곳에서는 서비스하지 않는 책도 찾을 수 있는 편	· 37지 맞춤형 요금제 · 북클럽×FLO 요금제(9천900원)는 전자책뿐 아니라 음악도 무제한
추천 유형	다독을 원하거나 신간, 베스트셀러 읽기를 좋아한다면 밀리!	독서 자체에 중점을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책을 이용하고 싶다면 리디!	특별히 원하는 책이 있다면 소장 도서가 많은 교보!	YES24 이용자거나 비교적 저렴한 구독료로 음악까지 듣고 싶다면 YES!

리포터가 알려주는 전자책 앱 활용법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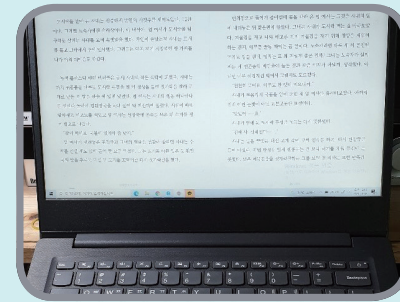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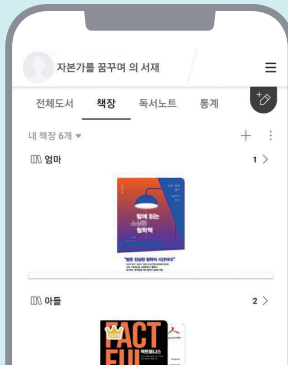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전자책을 보기 위한 전용뷰어 앱. 설치 후 평소 이용하는 도서관을 검색해 도서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사용 가능하다.



1 스테디셀러 위주로
전자도서관은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들 도서는 대출 중인 경우가 많으니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빌리는 데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권해요.

2 다양한 도서관 이용
도서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수와 종류가 달라요. 원하는 책이 없다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찾아보세요. 회원 가입한 도서관은 사재에 즐겨찾기를 해 두면 편리하답니다.

3 눈이 편한 독서
글자 크기, 글꼴, 줄 간격, 배경색은 물론 책 넘김이나 소리 효과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게 화면을 조정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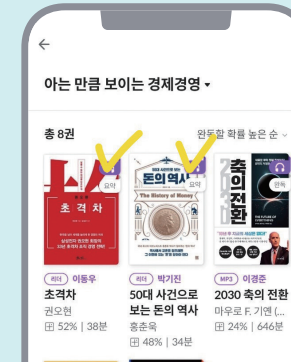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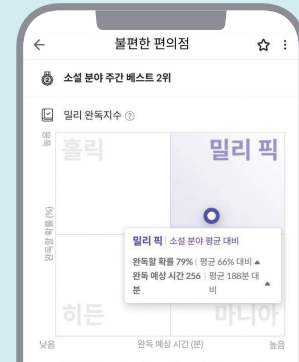
2 PC · 종이책과 병행해요
스마트폰에서 읽던 책을 PC나 태블릿에서 그대로 이어 읽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PC로 편하게, 밖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으면 금방 완독하겠죠? 종이책을 병행해도 좋아요. 종이책으로 읽기 편한 책은 집에서 종이책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전자책을 활용해보세요.

1 가족과 함께 읽어요
밀리의 서재도 넷플릭스처럼 아이디당 여러 대의 기기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다른 기기로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 서재의 책장을 가족 구성원대로 분류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답니다.



밀리의 서재

10만여 권의 책을 보유한 대표 전자책 앱이다. 다양한 추천 책을 볼 수 있고, 오디오북, 책방 등으로 독서를 다채롭게 할 수 있다.



3 완독자수와 리뷰로 맞춤 책 골라요
완독할 확률과 완독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완독자수로 해당 책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또 한 줄 리뷰와 책에 대한 포스트를 살펴보면 책을 읽기 전 어떤 책인지 대략 예측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어려운 책은 오디오북으로 먼저 들어요
오디오북 서비스가 정말 좋은데, 그중에서도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핵심만 골라 요약해서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추천해요. 다소 어려운 책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약에 더해 해설까지 곁들여주는 책을 읽기 전 마중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땐 오디오북 그 자체로도 훌륭한 독서가 되죠.

5 하이라이트 모아 보기로 독서 기록 남겨요
책을 읽은 후 짧은 리뷰나 포스트를 작성해도 되지만,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그어 쉽고 편하게 독서 기록을 남겨보세요. 내 서재의 독서 노트에서 하이라이트 문장을 모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